



환경기술개발의 동향과 전망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높아져만 가는 국제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인 동시에 전제가 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수년 전부터 환경기술을 21세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유망 과학 기술로 지목하여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자국의 앞선 환경규제를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낙후된 국내 환경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2년부터 10년간 「G-7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후속으로 핵심환경기술(ET) 수준을 선진국대비 80%까지 확보하려는 목표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2001년~2010년)

이에 본지에서는 「환경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방향」과 2010년 이후 환경 R&D 개발 방향에 대한 「POST-2010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향후과제」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요즘 들어서는 환경기술들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에서 에너지 회수나 창출이 가능한 기술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여러 가지 유망환경기술(종이소모를 줄이는 기술, 이산화탄소의 격리, 식물을 이용한 토양복원, 녹색지붕, 해양 열에너지 전환기술, 태양에너지의 고효율 저장기술, 수소연료전지기술, 열분해기술 등)의 최근동향에 대하여도 소개를 하고자 한다.

〈편집부〉

클립본서

Part 1 환경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방향 (김낙빈 환경부 환경기술과장)

Part 2 POST-2010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성과와 향후 과제 (설석진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사업지원본부장)

Part 3 유망 환경기술의 종류 및 최근동향 (정진욱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